

學生生活研究所長의 보람과 고충

金 忠 會
(忠南大 教育學科 副教授)

I

소신껏 일해 보라는 총장님의 말씀과 함께 충남대학교 學生生活研究所長 임명장을 받아든 것은 지난 연초의 始務式 직후였다. 겨울다운 추위도 별로 없었던 때였지만 대학생들에 대한 研究와 指導를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한기를 느꼈던 순간이다. 아마도 학생 생활연구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發想을 미리 해 두지 못했기 때문이라.

맨 처음 연구소 직원들과의 對談은 이제까지 연구소가 무슨 일을 해 왔고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직원은 助教 세 명 그리고 겸직 발령으로 일하고 있는 教授 네 명이 있었다. 연구소의 機能과 活動에 대한 이들과의 대담, 연구소에 대한 規程 內容의 파악, 연구소가 수행해 온 활동에 대한 문헌 조사, 그리고 선임 소장 및 관심 있는 교수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학생생활연구소가 수행하여야 할 課題가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충남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가 발휘해야 할 機能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학생들에 대한 調査 및 研究였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원

만하게 영위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요소가 없는가를 규명하는 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학생 個人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과 集團의인 차원에서 조사·분석되어야 할 것이 있을 것이며, 그 연구의 결과는 學生指導 내지는 相談活動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개인에 대한 人間關係 내지 심리적 차원에서의 병리적 현상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그 개인의 성장을 유도하는 상담 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고, 학생들 集團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態度나 價値에 대한 연구 분석은 건전하고 발전적인 學校風土를 조성하기 위한 集團指導에 절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에 대한 서서비스 활동이다.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學科 또는 指導教授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활에 관한 指導와 助言을 받게 된다. 그러나 中·高等學校 때와는 달리 부모나 교수의 엄격한 지도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거나 결정하여야 할 문제를 지니게 마련이다. 학생들은 자기의 일에 대하여 自律的인 판단을 해야 하고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準社會人으로서 생활환경에 놓여진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자율적인 판단의 範圍를 학업이 수, 진로 결정, 교우관계, 병역문제, 과외활동,

학비 조달문제 등으로 더욱 다양하게 확산시킨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領域에 걸쳐서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해야만 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정보를 추구하게 되며 또 判斷過程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도교수나 학과 그리고 대학의 해당 事務管掌部로부터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생활연구소는 학과나 지도교수가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어려운 측면에 대하여 專門的인 助言을 하여야 하고 또 필요로 하는 情報를 수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심리적인 문제, 교우관계, 과외활동의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진학 및 국외 유학에 관한 情報과 취업에 관한 정보는 계속적으로 수집, 제공해야 할 것이다.

II

방학이 끝나고 學期가 시작되면서부터 학생생활연구소의 학생들에 대한 서서비스 활동이 본격화 된다. 학생들은 수시로 연구소를 드나들며 필요한 情報를 기존의 자료에 의해 또는 문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部長敎授들 또는 所長을 직접 만나게 된다. 개인 상담은 미리 약속을 하고 약속된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여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수시상담이 오히려 많은 편이다. 학생들이 자기 필요로 할 때 소장실이나 부장실의 문을 두드리고 面談을 요청하는데야 이를 외면할 수 없다.

각양 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학생들 가운데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의 意思決定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현재 행하고 있는 활동이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問題意識을 갖고 있는 학생임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해결을 요하는 문제이기 보다는 精神的이거나 心理的인 좌절과 갈등에

관련된 문제인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를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대학생들 가운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觀念이 될 수 있는 合理的인 判斷의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問題의 核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나 해결의 方向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성인들에게 기대되는 合理性의 수준에 미흡한 학생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하나의 사례는 어떤 課外活動 모임의 간부요원으로 이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 학교 공부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인 학생의 경우로, 그는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휴학을 하고 쉬면서 당분간 자기가 맡은 活動을 계속하다가 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연구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처음 그는 휴학의 理由를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때문이라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등록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되어가는 시기였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그는 자기의 가정에 經濟的 問題가 별로 없음을 시인했고 학교성적도 중간 이상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狀況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심해 왔음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 즉 과외활동 모임에서의 하는 일을 다른 方式으로 개선해 보려는 노력은 해 보지 않았다. 이 학생과 상담교수는 과외활동 모임자체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改善方案을 확인하고 그로 하여금 최선의 案을 受容하게 함으로써 그는 학업과 과외활동의 조화를 이루어 가며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그 학생에게 필요했던 것은 문제의 核心을 스스로 지각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思考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는 대학 저학년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엄격한 통제와 지시에 익숙해 있던 高校生活에서 自律이 강조되는 大學生活에로의 급격한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成人이라고 해서 모두가 合理性이나 順理에 따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大學에서 이 「갑작스런 成人」의 경우 친절한 지도와 조언은 특히 필요하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精神的이거나 心理的인 갈등 또는 좌절의 문제를 가지고 연구소를 찾는 학생의 수효는 그리 많지 않다. 원래 그러한 학생이 적어서 그럴 것이라고 믿고 싶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은 것 같다. 사람들이 자신을 남에게 表示시키기를 싫어하는 性向이 있기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으나, 만약 학생생활 연구소에 대한 모종의 偏見이 있기 때문이라면 이는 시급히 바로잡아져야 할 것이다. 내 자신이 학생생활연구소 소장으로서 일해 오면서 이제까지 받은 인사말 가운데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을 겁니다”라는 것이 가장 빈번했다. 그때마다 되물어보면 한결같이 「問題學生 운운」의 대답이었다. 소위 문제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인사말로 낙착되는 것이다. 또 수업시간에 들어가면 나는 학생들에게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질문을 해 본다. 대개는 묵묵부답이다가 한참만에야 좀 거리감 같은 것을 느낀다는 대답을 들려준다. 적어도 이러한 대답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하나는 자신에게 학생 생활연구소에 가야 할 만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秘密事項을 연구소가 파악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나 자신은 연구소의 서어비스 기능과 개인적 비밀 보장에 대해 간단한 홍보활동(?)을 펴 보지만, 대학을 알 만한 성인들의 期待나 학생들의 느낌은 내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른 것 같아서 어떤 소외감 같은 것을 맛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많은 학생들이 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입수해 갖고 또 상담에 自願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肯定的인 측면에서 해결함으로써 대학생활을 훌륭하게 영위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흐뭇한 보람으로 허전함을 메꾸어 간다.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활동을 통하여 대학생활에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不適應現象을 줄이고 문제학생의 발생을 豫防할 수 있다는 論理를 받아들이며 이를 이룩해 나아가겠다는 것을 證거로 삼는 이외에 더한 보람이 또 있을까.

III

사실상 전국의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생생활(지도)연구소들이 踴躍하는 바는 대학생활에의 適應에 關連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당 대학생들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도움을 배필 수 있게 되는 일일 것이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판단의 錯誤를 범하지 않고 주변적인 문제에 罣礙 없이 자신의 潛在力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대학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課業을 수행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지도 및 상담의 理論과 技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인간에 關한 체계적인 연구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연구소가 지녀야 할 專門性, 科學性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방법도 電算化함으로써 그 신속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생 생활지도 활동을 연구소가 전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과 다른 부서나 教授들의 협조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연구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소는 대학 내의 다른 부서와의 協助關係를 보다 원만히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생활연구소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소의 機能과 活動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